

더 깊은 묵상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담당 의사도 치료를 포기하고 부모조차도 손을 떼,
병원 한구석에 버려진 어린 생명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이어가던 이 어린 환자를 자원 봉사자였던
한 은퇴 간호사가 발견했습니다.
울 기력조차 없어 보이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그 간호사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꼭 살려야만 합니다. 결코 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사랑으로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의식이 없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아이의 수발을 다 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찬송가를 불러주고, 성경도 읽어주며,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아이를 품에 안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잠결에 찬송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보니 품에 안고 있던 아기가 오랫동안의 침묵을 깨고 자신이
늘 불러주던 바로 그 찬송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한 간호사의 뜨거운 열심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간호사의 열심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열심으로 그 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나의 열심 위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독교는 나의 선행과 노력 위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거룩한 의지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 즉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도 확실하기에
감히 그 분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 은혜의 품속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서정오